

지역 소식통

김제,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6월9일)을 기념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구강건강에 관심을 높이며 구강위생 실천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행사는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 구강관련 교육용품 등 기자재 전시, △ 구강건강다짐 포토존, △ 어린이 구강보건실 견학, △ 가두 캠페인, △ 어린이 구강관리 강좌로 진행됐다.

지난 3일 베이캐슬 어린이들의 구강보건실 견학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잇솔질, 치아에 좋은 음식, 무선티치 않은 치과 체험 등 구강건강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으며 7일에는 지역주민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검진 및 올바른 잇솔질 강요하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마지막 10일에는 "어르신 구강관리법 강좌"를 진행했으며 교육내용은 구강 질환의 원인 및 예방법,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한 입 체조법, 치과 관련 건강보험 혜택 안내, 틀니세정제를 이용한 틀니 관리 요령 교육을 병행해 노년기 구강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2024

김제시 해외봉사단 '성료'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은경)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동나이성)에서 '2024 김제시 해외봉사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에는 봉사활동(Volunteer)과 여행(Tour)의 합성어로, 봉사자들에게 해외 봉사의 경험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센터에서 주관하는 첫 해외 봉사활동이다.

이번 해외봉사단 봉사단은 김제 관내 전문 자원봉사자 25명이 참여했으며,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시설과 고아원 2곳을 방문해 기관에서 요청한 노후화된 시설물의 페인트칠 등의 시설 정비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 식사 보조, 목욕 등의 노력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집중 포화... 송곳 질의·정책 대안 제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갑)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주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해 달라"고 동료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시작한 완주군의회 행감특위가 첫날부터 완주·전주 통합 등 중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첫 질의에 나선 유이수 의원은 "완주군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며 "통합 논의는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합보다 경제적 효과와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부건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전적으로 완주군민의 뜻에 달려 있다"며, "군사작전 하듯 급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중기 의원은 "현 상황에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보다는 인구 10만명이 다가오는 완주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며 "앞서 지난 95년 이후 무려 세 차례나 추진된 시·군통합 무산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익시 의원은 "군민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이 없는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주민들을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지역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었다. 최광호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전주KBS·전북일보가 실시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완주군민들이 여전히 반대(55%)하는 입장이 우세한 지표"라며, "군수님이 주장하는 주민의 뜻이 반대로 향하고 있는데 왜 명확히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규성 의원은 "통합을 위해선 복잡한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하고, 통합 이후에도 사회적 비용과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이 수반될 것"이라며 "선출직은 주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순덕 의원은 "군민을 뒤로 하고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려 하거나 분위기를 몰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통합은 축제가 돼야 한다"는 발언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용어 사용을 적절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현 의원은 선부론 행정구역 통합 논란에 대해 "완주·전주 통합은 두 지역 간 상생과 화합을 위한 수많은 노력과 설득이 있어야 하고, 두 지

역 주민이 동의해야만 성사가 가능한 일"이라며 "익히 알고 있던 대다수의 완주군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군수님의 정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주갑 위원장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접근 방식으로 지난 1997년과 2009년, 2013년 등 3차례나 행정구역 통합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면서, "완주군은 탄탄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수소특화국가산단 등 인구 10만, 전북 4대 도시로 독자적 성장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사실상 완주군에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정 전반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관심이 많지만 시간적인 문제로 더 많은 질의를 할 수 없음을 양해 달라"며, "향후 발전적인 군정 방향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전일정을 마무리 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첨단특장차 전문인력 양성 추진

## 김제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 선제적 대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전기차·디지털 혁신 등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특장차 자기인증센터에서 '첨단특장차 미래차전환 인력양성 교육'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22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소규모 제작사의 직접 안전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증 업무 적정성을 확보하고 전기차·디지털 혁신 등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첨단특장차 미래차전환 인력양성 교육'은 직접 안전 검사 실시 담당자와 제작사 인증 업무 담당자 및 전기차 관련 업무 종사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총 12차로 진행되며 10월 제1차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과정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이 수행하며 소규모 제작사 직접 안전 검사 및 인증 업무 전문화 교육과 전기차 고전압 장치 안전성 과정을 통해 설계, 제작, 수리, 정비 등 특장차 업계 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

킬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안전기준, 안전검사 이론, 전기차 구조 및 원리, 전기차 안전 교육 등이다.

특히 올해는 김제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해 벽골제, 이리탕문화마을 등 관내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고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을 추가해 교육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신청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특장차자기인증센터(063-544-9858)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국 유일 특장차 집적단지를 보유한 김제시 강점과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규모 제작사 인증 업무 프로세스 교육을 통해 인증 적정성도 확보되고 특장차 제작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교육이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특장차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장차 산업 인적 자원 육성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여성새일센터, 멀티사무원 양성 직업교육훈련 수료

김제시(시장 정성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0일 경력단절여성 16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직업교육훈련 '멀티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식을 갖고, 오후에는 일자리 연계를 위한 관련직종 사업체 인사담당자와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지원 국비 무료 직업교육훈련으로 진행된 '멀티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은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무회계 전산분야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4명은 조기 취업에 성공했다.

이번 직업교육훈련은 사무회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산회계,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인 전산회계 2급, ITQ엑셀, 파워포인트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4개 과목 자격시험에 43명이 응시하여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서효연 센터장은 "관내 구인업체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 구직자에 대한 취업연계를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새일센터에서는 교육과정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훈련생 취업연계와 직장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2024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업소 모집... 14일까지

완주군이 오는 14일까지 '2024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외식업소(일반·휴게음식점) 25개소를 모집한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은 외식 트렌드 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으로 도

내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게 선정돼 총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해 시범 추진한다.

△경영관리 △홍보·마케팅관리 △위생관리 △메뉴개발 △푸드테크 도입·적용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컨설턴트 추천에 의한 예비 자율랭(풀서비스 맛집) 가능 업소에 대해서는 2개 분야까지 중복 지원 가능하다.

특히, 관내 외식업소 중 완주농산물 사용인증업소(49개소), 안심식당(456개소), 외식창업인큐베이팅(청년키움식당) 수료 창업자는 신청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식업소는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 주소(anniloyd0118@korea.kr)로 기한내 접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